

2019년 8월 19일, 서귀포시 대천동(강정동) 강정마을경로당, 류진옥 조사.

고숙자(여, 1944년생, 서귀포시 강정동)

-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출생으로 강정동에서 현재까지 50년간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고종달이 제주도에 들어와 수맥을 끊으면서 다녔는데, 서홍리에 가서 '꼬부랑낭 아래 행기물'을 찾지 못했다. 그 속에 숨어있던 물신 덕분에 다른 지역이 아무리 가물어도 서홍리는 샘이 마르지 않았다.

[제보자] 옛날에는 고종달이엔 헌 사람, 이름이 고종달이엔 헌 사람이 있었는데. 그 사람이 신기한 문서가 있었다는 거야. 아주 좋은 문서가 잇인디 그 육지서 와서 이렇게 종달리로 들어왔는데. 물어봐도 이 마을 이름이 뭐냐 하면 종달입니다. 아이?라 물어봐도 이 마을이 어디냐고 하면 이름이 어디라고 하면 종달이엔 헌 거라.

그 사람이 부에가 난 거라. 자기 이름을 따서 허난 옛날에난 부에 나니까 물 혈을 떠 불어야 돼肯. 종달리로 이 동짝드레 마을마다 보민, 문서에 보민 어디에 무슨 물이 있다 하민 그디 찾아가그네 물 혈을 떴다는 거라.

물 거려가지고 혈을 뜨면 그 물이 나다가 딱 중단뒈고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그 물 혈을 떴는데 자츰 허다가 요 서홍리엔 헌 디까지 오니까 그 할머니들이 밧디 일허레 갓다네 그 나는 물에 가그네 놋사발에 물을 떠단 이제 쉐 질메는 거 있어. 짐 싣글 때 허는 거, 그 질메 알드레 써녕허렌 물 먹고 떠단 낮인디 놔 뒀그네 일햇인디 그 문서를 보니까 꼬부랑낭 아래 행기물이라고 써졌거든.

그때 물구신이 겁 집어먹엉 놋사발에 놔 둔 걸 그 사람은 뜨젠 보난 꼬부랑낭 아래 행기물이엔 써졌이난 안 돼肯 헹 아이고라 들엉 꼬부랑낭 아래 행기물 어딧냐 하면 이녁은 이런 물은 봐 보지도 안허곡 들어보지도 안허곡. 또 어른?라 골아도 그런 물 어디 시넨 미친 소리 했덴 하고 막 노인네 앞에 들어도 미친 소리 했덴. 꼬부랑낭 아래 행기물이 어딨냐고 우리 들어보지도 않으곡 했덴 허난. 그때 문서를 찢어벳젠 허주.

고종달이엔 헌 사람이 이 문서 앗앙 뎅기당은 나가 망신 당하기가 일 분 전이

난 안 뛰肯 그때 물을, 문서를 찢어 부난 이 물이 혈이 살아잇덴 허는 거라. 그 때만 그 할망네가 그 물 안 떠당 그 구신이 설이 그디 안 돌아낫이민 아래 쭉 떠 불젠 헷다는 거라. 고종달이 육지서 와서, 경 저 동드레 물이 안 낫거든. 그 때 물이 없어서 내엿물 치멍 먹엇주게. 비 와그네 내 쳐나민 소도 못 들어가고 허는디 먹는 물로 헹 딱 지정뒈엉 그디 먹당 더 우트레 강 또 소도 못 들어가는 디 또 먹는 물로 딱 지정. 옛날부터 지정된 디 강 질엉 허벅으로. 정수암 잇는 디 최고 먼 디 가민 생전 보뜨지 않엥 그디 건 원체 물이 소도 못 들어가고 막 허는 디난 먹는 물로 지정햇인디 제일 뭐 헌 디가 그디 강 질어당 먹엇젠허주.

[조사자] 꼬부랑낭 아래 행기물.

[제보자] 꼬부랑낭 아래 행기물. 거난 꼬부랑낭 아래 행기물이 어딨넨 허민 아무도 모르肯 허난 이 문서 가정 다니믄 큰일나肯 헤그네 그 디서 찢엇젠허주. 경혜 부난 이 디서 물이 그저 살앗젠허주.

그런 전설이 있어. 그건 확실하게 친정 아버지님이 골아쥔. 우리 물 엉엉 이디 그추룩 헤 부난 엇덴 허고.

[조사자] 내력을 막 골아젖구나예.

[제보자] 물이 딴 디는 잇어도 경행 이 강정은 물이 좋앗주게. 물이 좋아그네 물 강, 물 정이라. 물이 좋양 강정이주 딴 건 엊어.

게난 토지도 좋고 물도 좋고 땅이 좋아. 보리쌀도 한번만 키우면 밧 되고 이던 막 보리쌀도 좋앗어. 옛날.

- 핵심어: 고종달, 서홍리, 꼬부랑낭, 행기물, 보리쌀(보리쌀), 밧(밭)